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와 문화융합의 콘텐츠 방안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al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Humminjeongeum’ of Sinmi and the Way of their culture-convergence contents

Baek Won-gi

Dept. of Buddhist Culture and Art

요약 지금까지 ‘훈민정음’이 세종의 명을 받은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미(1403-1480)가 세종의 밀명을 받고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나아가 이와 관련 설화의 문화융합 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특히 『세종실록』, 『문종실록』, 『한국불교전서』 등 문헌 중심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세종의 신미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 둘째, 신미가 범어에 능통하여 불경 해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점, 셋째, 세종이 금동아미타삼존불을 복천암에 시주하고, 신미에게 ‘國利世 慧覺尊者’라는 존호를 내린 점, 넷째, 신미의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의 교육과 보급의 서원, 다섯째, 세조의 신미가 주석하고 있는 복천암 방문 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를 단순한 스토리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스토리텔링 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융복합 문화콘텐츠 활성화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었다.

• **주제어** : 훈민정음창제, 세종, 신미, 설화, 문화융합 콘텐츠, 세조

Abstract So far, it has been a general opinion that ‘Hunminjeongeum’ creation was made only by King Sejong himself under Jiphyeonjeon scholars’ help. However, this paper stresses that ‘Hunminjeongeum’ was made not only by King Sejong but also by Sinmi’s positive effort on King Sejong’s secret order,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culture-convergence contents related to these tales as well. To reveal the ground,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proceeded particularly focusing on following texts: Sejongsillok, Munjongsillok, Hangukbulgyojeonseo, etc. The result was as followings. 1) King Sejong’s absolute trust in Sinmi, 2) Sinmi’s outstanding linguistic talent in Sanskrit. 3) King Sejong’s donation of Amitaba-Triad Buddha images to Bokcheonsa Temple and Sejong’s granting a respecting title of ‘Wugukise Hyeogakjonja’ to Sinmi. 4) Sinmi’s vow to educate and spread ‘Hunminjeongeum’ based on Buddhism, and 5) Sejo’s visit Sinmi at Bokcheonsa Temple. Furthermore, if the tales related to ‘Hunminjeongeum’ creation are activated into a type of national or regional events or festivals without remaining simply in a story level, it would be a good way to spread the excellence of convergence K-culture with various culture contents.

• **Key Words** : ‘Hunminjeongeum’ creation, King Sejong, Sinmi, Tales, culture-convergence contents, King Sejo.

*Corresponding Author : 백원기(energy8549@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5, 2016

Revised January 31,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지금까지 ‘훈민정음’ 창제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기원이 범어임을 깊이 있게 살피려는 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그 당시 범어나 티벳어에 능통했던 누군가가 훈민정음 창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집현전 학사들 중에 범어, 티벳어, 몽골어 등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 인물이 바로 자음 모음 체계이자 소리글자의 근원인 범어에 능통하여 불경 해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신미(1403-1480)였다.

그렇다면 신미가 범자(梵字)를 모방해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송유역불이라는 통치이념을 가졌던 집현전 학사들 중에 불교를 배척하는 유학자들의 반발로 신미에 대한 기록이 고의적으로 누락되었고, 또한 훈민정음을 오랫동안 지키고 절대 신임하는 신미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종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세종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신미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범어와 티벳어, 몽골어 등에 능통한 신미가 세종의 밀명을 받고 은밀히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과 그와 관련된 설화를 고증하고 그것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융합 콘텐츠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미의 출가와 수행

지공-나옹-무학-함허의 법맥을 잇고 있는 신미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오얏골에서 승록대부를 지낸 조부 김종경(金宗敬)의 아들로 촉망받던 부친 김훈(金訓, 1381-1437)과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이행(李行)의 딸인 정경부인 여흥이씨 모친 사이에서 4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속명은 수성(守省)이며, 수경(守經), 수온(守溫), 수화(守和) 등의 동생이 있었다. 어릴 때 조부에게 한학을 배운 신미는 10세에 성균관에 입학해 수학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¹⁾ 그러나 부친 김훈이 죄인의 몸으로 대마도정벌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폐위된 정종과 가깝게 지낸 죄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로 전락하게 되자 고향에서 멀지 않은 속리산 범주사의 복천암으로 출가하여 행호(行乎)선사²⁾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해진은 외할아버지 이행이 김수성을 양주 회암사의 함허당 득통(1376-1433)에게 보내어 삭발염의 하고 신미(信眉)라는 범명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 필자 역시 신미가 함허당에게 출가하였다는 박해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동의를 한다. 하지만 출가 사찰과 득도 스승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가한 신미는 범주사에서 일생의 도반이었던 수미와 함께 대장경을 읽고 계율을 익혔으며, 당시 쇠락한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수미와 뜻을 함께 하였다. 얼마 후 수미가 선 수행을 위해 떠난 뒤 범주사에서 복천사로 들어가자 신미는 대장경 속에 길이 있다는 스승 함허 득통의 말씀을 되새기며 대장경 공부에 전념하였다. 범서(梵書) 실담장(悉曇章)을 읽고 번역하기 위해 범어도 익히고 주역도 다시 읽었다. 그 결과 불교경전에 두루 해박하고 남다른 언어감각을 지닌 신미는 한문은 물론 범어와 티벳어, 몽골어까지 능통해서 각국의 경전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2.1 세종의 발탁과 ‘훈민정음’ 창제 참여

효령대군은 세종이 기획한 새로운 문자 창제의 협력자로 구결과 범어, 주역과 삼재에 정통한 신미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세종은 당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감시를 받는 처지여서 문자나 기술의 발명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밀리에 속리산 복천사에 주석하고 있는 신미를 발탁하여 집현전으로 불러와 훈민정음 창제의 임무를 맡겼다. 아울러 문종, 효령대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외에는 이 일을 철저한 비밀에 붙였다.

훈민정음의 큰 골격을 잡는데 집중했던 신미는 대장경을 읽고 구결 속에 녹아 있는 향찰의 원리와 주역을 관통하고 있는 천지자연의 법칙을 찾아 연계하는데 골몰하였다. 그가 구결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은 함허 득통과 외할아버지 이행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신미는 범패(梵唄)에 능한 어장(魚

1)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丁巳

2) 『문종실록』 권2, 위와 같음.

3) 박해진, 『훈민정음의 길, 해자존자 신미 평전』, 나남, 2014, p.24.

丈)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⁴⁾ 그 결과는 신미는 세종이 제시한 글자 원리를 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모방하여 가감하면서 글자를 고안하여 제안하자 세종은 이를 쾌히 받아들였던 것으로 진단된다.

주목할 부분은 유서(儒書)에만 능했던 집현전 학자들 대부분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지만, 불경, 유서, 범서 등 모두에 능하였던 신미가 범서에서 착안한 훈민정음 논의에 대하여 유생들은 일체 반론을 못했고 신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세조와 함께 간경도감에서 수많은 불전을 이해하고 편찬함으로써 조선 선교사(禪敎史)에 큰 발자취를 남긴 혜각존자 신미는 1480년(성종 11년) 5월 복천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8세, 법랍 64세였다. 학열, 학조 등 제자가 지극지성으로 다비를 치루고, 복천사 뒤 동편 언덕에 '수암화상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

3.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 주역 관련 설화와 위상

3.1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의 근거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쓴 정인지의 글을 보면 “그 연원과 정밀한 뜻이 묘연해서 신 등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곧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돕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세종을 도왔음을 시사한다. 즉 세종이 범자를 모방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 그 과정에 범어에 능통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신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천사에 주석하던 신미가 세종의 부름을 받아 복천사와 한양을 오가며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세종의 신미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다. 세종은 문종과 세조를 속리산 복천암에 주석하고 있던 유.불.선에 능통한 불교학자이며 언어학의 대가인 신미를 발탁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불경 번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복천보장』에 “세종은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를 예상하고 문종, 신미,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5인에게만 훈민정음창제 작업을 극비리에 명령하였다”는 대목은 신미에 대한 세종의 신임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시사해준다.

당시 승려는 도성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총애를 받은 신미는 신하복장을 하고 궁중출입을 하며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세종에게 많은 자문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신미의 궁중출입을 반대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세종이 죽기 몇 달 전 신미를 침실로 불러 예를 다해 모시고 범사(法事)를 베풀었던 점, 그리고 『영산김씨 족보』에 “守省(신미 속명)은 집현원 학사를 지냈고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守省以集賢院學士得寵於世宗)”는 대목 등은 신미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해 준다.

둘째, 신미가 범어에 능통했던 점이다. 오늘날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설은 훈민정음의 범자(梵字) 모방설이다. 김수온(1410-1481)이 지은 『복천보장』에 신미는 불경에 통달했으나 한자에 오역이 많음을 느끼고 범어를 공부한 사실, 또한 복천암 사적비 기록 가운데 “세종은 복천암에 주석하던 신미로부터 훈민정음 창제 중인 집현전 학자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게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초기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서 “훈민정음은 범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점,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에서도 언문은 범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조선 후기 언어학자인 황윤석(1729-1791)의 “우리 훈민정음의 연원은 대저 범자에서 근본을 두고 있으며 범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점과 궤를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능화(1869-1943)의 『조선불교통사』에서 훈민정음 글자범이 범자에 근원한 것이라며 비슷한 용례까지 들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훈민정음의 범어 기원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⁵⁾ 등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사자들 중 누군가가 불교경전과 범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는 누구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세종과의 교분이 깊고 언해본 간행을 비롯해 경전언어에 깊은 조예가 있는 신미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종이 금동아미타삼존불과 좌우보처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조성해서 복천사에 시주한 점이다. 세종의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신미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답하기 위한 각별한 마음의 표시

4) 박해진, 위의 책, p.41.

5) 김봉태,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 훈민정음과 산스크리트 문자』, 대문사, 2000.; 김봉태,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와 글자모양』, 삼우사, 2002.

였던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세종은 신미에게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용무에 혜각존자(禪敎都總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碍 慧覺尊者)’라는 긴 존호를 지어 문종에게 위임하여 문종이 부왕을 대신하여 신미에게 사호(賜號)하였던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이 ‘우국이세(佑國利世)’이다. ‘나라를 위하고 세상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것에 버금가는 일은 곧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일이며, 또한 신미가 이 일의 주역이었음을 선명하게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신미의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의 교육과 보급의 서원이다. 훈민정음 창제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표면적인 목적 외에도 내면적으로는 다분히 불교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즉 훈민정음 창제가 3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무리 되었는데, 신미는 여기에 불교사상을 녹여 넣은 것이다. 그것은 『훈민정음해례』의 결왈(訣曰), “훈민정음은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내린 불교와 대장경을 읽어 내려간 구결, 그리고 주역 사상을 집약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문자다. 이는 때 놓을 수 없는 관계다. 계송이 갖는 압축과 단순성을 최대한 살렸다. 세종 어지의 한문은 54자, 언해문은 108자다. 세종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집현전의 학자도 말없이 수용했다.”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한편, 김광해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는 불교의 신성 숫자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훈민정음 창제 당사자들은 새로운 문자의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⁶⁾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백성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자비가 널리 퍼지길 바라는 불심을 반영하는 법수(法數)이며”⁷⁾ 아울러 불심의 끊임없는 확산과 보급의 서원이 훈민정음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후 신미의 주청에 따라 언문청을 설치하여 불경을 언해하기 시작한 것도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련한 근거임을 보여준다. 1447년, 신미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엮으라는 세종의 명을 받아 수양대군, 김수온 등과 함께 7개월 동안 밤낮을 잊고 작업한 끝에 훈민정음으로 쓴 최

초의 『석보상절』 24권을 간행하게 된다. 이 후 신미는 『능엄경언해』와 불교 연원을 밝힌 『월인석보』, 조선 건국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용비어천가』, 불법승과 천지인을 집약한 최초의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등의 불교경전을 국가적인 번역사업으로 편찬하게 된다. 그런데 송유억불의 조선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논어』, 『맹자』와 같은 유교경전들을 번역해서 백성들이 읽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불경을 번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의 교육과 보급에 서원을 둔 신미의 원력을 말해 준다.

다섯째,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후 불과 몇 달 후에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상소이다.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되자 2개월 후 집현전 부제학 실무담당인 최만리를 비롯한 신숙주, 김문, 정장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은 “굳이 언문을 만들어야 한다하더라도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들까지 널리 상의한 후 해야 할 것인데 가법계 옛 사람이 이미 이론 운서(韻書)를 터무니없는 언문(諺文)으로 억지로 들어 맞추고…”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훈민정음창제 반포에 대해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 그 배경에는 훈민정음의 원리적 근거가 유교가 아닌 불교였기 때문이고, 그 불교의 한가운데에 신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사망 후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을 화장실에 앉아서 배우는 뜻의 ‘통시 글’이라 멸시했다는 사실 역시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임을 밝혀 주는 부분이다. 과연 집현전 유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 그들 스스로 훈민정음을 비하하고 반대했겠는가? 이러한 사실에서 그들은 ‘훈민정음’ 창제와 거의 무관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세종은 어쩌면 유학자들의 반대를 일찌감치 예상하고 신미에게 훈민정음 창제를 당부했던 것으로 진단된다.

여섯째, 세조가 신미가 주석하고 있는 복천사를 방문한 점이다. ‘훈민정음’ 창제를 마치고 신미는 집현전에서 나와 복천사로 돌아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조는 신미의 주도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을 4년간 보았기 때문에 신미를 스승으로 받들고 존경한 나머지 복천사를 찾아가 범문을 들고 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꿈에 단종의 생모이자 형수인 현덕

6) 김광해, 「훈민정음창제와 불교신앙」, 『불교문화연구』 제3집, 1993, p.48.

7) 박해진, 앞의 책, p. 639.

왕후(문종의 비)가 나타나 “네가 아무리 용상이 탐이 나 기로서니 어린조카를 살해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더러운 놈아!”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은 후 세조는 51세로 죽을 때까지 심한 부스럼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래서 1464년 2월, 세조는 온양 온천을 다녀오겠다는 이유로 순행(巡幸)에 나섰지만 속내는 스승 신미가 상주하는 복천사에 가는 데 있었다. 이때 여러 편의 설화가 생겨났던 것이다.

3.2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이품송' 설화이다. 즉 세조가 범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가지가 아래로 처져 있어 가마가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세조가 “가마가 걸린다”고 말하니 소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위로 들어 왕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였다 한다. 또 세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리하여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이품’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이 소나무를 ‘정이품 소나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문장대’ 설화 역시 빼 놓을 수 없다. 세조가 요양을 위해 속리산을 찾아왔을 때 어느 날 꿈속에 귀공자가 나타나 “인근의 영봉에 올라 기도를 하면 신상에 밝음이 있을 것”이라 일러 주었고, 다음 날 세조가 이곳에 올라 오륜삼강(五倫三綱)을 명시한 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글을 읽었다고 해서 ‘문장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이후로 구름에 감춰진 봉우리 운장대(雲藏臺)가 글이 숨겨진 봉우리라는 뜻의 문장대(文藏臺)로 바뀌게 된 것이다.

‘목욕소’ 설화 역시 이 무렵 생겨난 것이다. 세조는 복천사에서 신미와 학조의 두 고승과 함께 3일 동안 기도드린 뒤, 암자에 이르는 길목의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절을 중수하고, 또한 ‘만년보력(萬年寶歷)이라고 쓴 사각옥판(四角玉板)을 하사했다고 한다. 복천사에서 세조는 법력이 높은 신미가 주재하는 법회에 참가하여 법문을 듣고 학열(?-1482), 학조(1432-1514) 스님 등과 3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깊은 죄책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쌀과 토지를 복천암에 하사한 뒤 온양에는 들리지 않고 곧바로 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⁸⁾

한편, 복천사 법회를 마치고 아쉽게 떠날 무렵, 신미는 세조에게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는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있는데 오랜 세월로 심히 퇴락하여 민망한 지경에 있으니 대왕께서 이 보궁을 중수하시면 그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보궁 중수를 간청하였다. 세조는 쾌히 승낙하고 바로 학열 스님을 상원사로 보내어 중수를 시작하였다. 신미는 자신의 옷과 발우를 불사기금으로 모두 내놓으며 본격적인 권선을 시작했다. 그러자 제자인 학열과 학조도 적극 동참했다. 신미의 세조에 대한 지극정성의 자비심에 크게 감동한 세조는 눈물을 흘리며 쌀, 직물, 철 등 사찰을 중수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피부병으로 피고름이 묻어있는 어의(御衣)도 문수보살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원사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세조는 신미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하며 친히 「오대산 상원사중창권선문」을 작성했다. 세조의 수기(手記)로 된 이 ‘권선문’은 최초의 훈민정음 권선문이었다.

세상에는 일곱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삼보, 부모, 임금과 선지식 등이 그것이다. 삼보는 현실을 박차고 떠남을 근본으로 하고,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임금은 백성을 보호함을 근본으로 삼고, 선지식은 미혹에 빠진 자를 인도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나는 일찍이 대군 시절 때부터 혜각존자를 만나 서로 도가 맞으며 마음이 화합하였다. 항상 속진의 길에서 나를 포섭하여 이끌고 나로 하여금 항상 깨끗함을 지니게 하여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어찌 대사(신미)의 공덕이 아니리오. 다짐의 깊은 인연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토록 계합할 수 있으리오. 또한 내가 병이 들었음을 듣고 주야로 수백 리 길을 달려 왔으니 이것을 고상한 일로 삼지 않으면 어찌 중생을 제도하는大悲라 할 수 있겠는가. 놀라고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이 그지없다. 또한 스승께서는 학열 스님, 학조 스님과 함께 나를 위해 옷을 팔아 영찰(靈刹)을 중창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함을 들었다. 스승이 나를 위해 마음 쓰는 것을 보니 나 역시 스승을 위해 감은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까닭에 나는 스승들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얼마간의 비용을 보태 구경의 올바른 연(緣)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이 직심(直心)의 보리(菩提)인 것이다. 이에 세자에게 부촉하여 영원히 후사(後嗣)로 드리우고자 한다.⁹⁾

8) 『세종실록』, 권 32, 세조 19년 3월, 甲寅

9) 세조,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 제1첩(월정사성보박물관). 한

-佛弟子 承天體道烈文英武 朝鮮國王李瑋

스승 혜각존자 신미를 대하는 세조의 진솔한 마음이 잘 담겨있는 훌륭한 문장의 권선문이다.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간찰(簡札)¹⁰⁾인 이 권선문을 본 왕비와 세자, 공주, 원로대신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등을 비롯해 8도의 수령과 방백, 장수 등 230명에 달하는 신료들이 세조와 마찬가지로 직접 이름을 썼다고 한다. 세조의 「오대산상원사증창권선문」(국보 292호)은 한문 권선문과 함께 ‘훈민정음’ 권선문이 수록되어 있어 정음(正音)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신미의 정성과 세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원사 증창불사는 불과 1년여 만에 회향할 수 있었다. 1466년 여름 세조는 상원사 증창 낙성식에 참여하여 큰 불사를 끝마친 신미와 학열, 학조 등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선비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여는 이벤트도 실시했다고 한다. 세조의 그런 공덕이 있었기에 상원사 앞 계곡물에서 목욕을 하다 문수동자를 만나고 등장이 다 나왔다는 ‘관대결이’ 설화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조와 신미 간의 ‘금란지교’(金蘭之交)의 관계에서 훈민정음 보급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3.3 신미의 법맥과 위상

함허당 득통의 정법을 잇고 있는 신미는 나옹화상의 선지(禪旨)와 교관(教觀)을 전수받고 있다. 신미가 함허당의 법파라는 주장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능화는 이 텍스트에서 “고려 말에 이르러 해동의 불법에는 두 감로문이 있다. 태고국사와 나옹왕사이다. 두 스님은 이미 법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력 또한 지니고 있었다. 당시 스님의 무리는 모두 두 분의 문하에서 나왔다. 마침내 조선 불교의 종조가 되었다. 나옹이 한 번 전하여 무학을 얻었다. 무학은 태조의 스승이 되어 또 한 번 전하여 함허를 얻었다. 함허는 『원각역소초』, 『금강경설의』 등을 저술하여 중문에 큰 공을 세웠다. 조선 세조 때 신미, 훈중, 사지, 학열, 학

조 등의 법사들은 모두 함허의 법파들이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 세조가 이들에게 함허의 서책을 교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¹¹⁾라며 언급하고 있고, 또한 “신미가 여러 선사의 법어를 많이 번역했는데, 그 중에 유독 나옹스님에 관한 것을 많이 번역하고, 또한 신미가 왕명을 받들어 교정한 함허화상의 『금강경설의』 역시 나옹 법손의 찬술임을 지적하며 나아가 신미와 백암이 불서를 유통시켜 조선 선교(禪敎)가 실로 큰 도움을 받았다”¹²⁾ 점을 언급하며 신미를 함허당의 법파로 주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능화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한다. 신미가 함허당의 제자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함허당은 경기도 고양의 대자암에 3년 동안 주석한 적이 있다. 그때 신미는 스승을 시봉하며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1365-1420)와 성령대군(1405-1418)의 천도를 위한 영산법회 등 왕실 불사를 주관하는 법을 체득하였다. 이후 함허당은 운악산 현등사로, 신미는 범주사로 각각 거처를 옮겨 수행을 하게 된다. 이별의 순간, 함허당은 신미에게 “가고 머무는 흔적이 다르지 않음” 설하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올곧게 수행정진에 매진하라는 아름다운 시¹³⁾ 한 편을 지어 전했다. 신미는 스승의 간곡한 당부의 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범주사에서 철저한 수행 정진을 했다. 그 결과 신미는 선과 교학에 밝은 수행자가 되었다.

반면, 신미가 벽계정심(碧溪淨心)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추정설이 있다. 2009년 북한암에서 펴낸 『선교도정섭 수암당 신미혜각존자 실기』에서는 신미가 벽계정심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다.¹⁴⁾ 그러나 벽계정심은 천봉만우, 고암천공과 함께 태

문은 다음과 같다: “世間有七重 三寶及父母君善知識 三寶爲出離之宗 君爲保身之宗 善知識爲道迷之宗 自予潛邸以來 我慧覺尊者 早相知遇 道合心和 每提攝於鹿路 使我恒懷淨念 不沈欲坑 致有今日 非師之功耶 非多劫之宿刃 安能如是契合耶 我今我違和 方瘥下床 晝夜奔來數百里之外 雖不事之高尙 若度生之大悲 予聞驚動 感淚無窮 又聞師與 悅師祖師 爲我盡賣衣資 重創靈刹 師之爲我用心 我之爲師感恩 非人所述 我故爲師等隨喜 略助所費 爲究竟之正因 所謂直心菩提者 也於是付囑世子 永垂後嗣云.”

10) 김영배, 김무봉,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1(어학 문학 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11) 이능화, 「함허와 청허, 법맥을 이어 문중을 지키다(涵虛淸虛扶宗樹敎)」, 『역주 조선불교통사』 6,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p.50-51. “海東佛法 至于麗末 有二甘露門焉 太古國師 懶翁王師 二人既有法力 又有勢力 盡出其門 遂爲朝鮮佛宗之祖 懶翁一傳而得無學 無學爲太祖師又一傳而得涵虛 涵虛著圓覺經疏金剛經說義 於宗門大有功焉 朝鮮世祖時 名僧弘濟信眉斯智學悅學祖等諸師 料皆涵虛之法脈也 何以知其然也 以世祖命此諸師校正涵虛之書故”

12) 이능화, 「함허와 청허, 법맥을 이어 문중을 지키다(涵虛淸虛扶宗樹敎)」, 『역주 조선불교통사』 6,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p.149-151. “慧覺尊者 以諺文 譯解諸禪師法語 獨多取與懶翁 有關係之人 又尊者之承命校正涵虛和尚金剛經說義 亦係懶翁法孫之撰述 余于是 知慧覺尊者 疑亦涵虛派故 其所流通者 亦多取其邊之書也 (...) 信眉柏庵 流通佛書 朝鮮佛敎 實益實多.”

13) 함허당, 「인별청헌자불각과양계」, 『한국불교전서』 권7, 조선시대1,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246: “한 가락 것대 소리 휘갑기는 곳 / 산 아래 개울가에서 너를 보낸다 / 가고 머무는 자취, 다르다 이르지 말라 / 산 개울, 구름과 달이 내 말 이해하리”(一聲長笛徘徊處 / 山下溪邊送客時 / 莫謂去留蹤自異 / 溪山雲月話須知)

14) 북한암, 『선교도정섭 수암당 신미혜각존자 실기』, 2009, p.5: 박해진, 앞의 책, p.43.

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의 범통을 잇고 있다. 그리고 구곡각운의 범계는 '송광사개창비'에 의하면 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 그리고 평안남도 범홍산 범홍사의 전등법맥에는 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신미가 벽계정심의 법맥을 잇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박해진의 "함허당이 평생을 궁구하여 깨달은 '무극의 범신'의 정신은 신미에게로 흘러들어 조선의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드는 열쇠가 되고 있다."¹⁵⁾는 지적 또한 신미가 함허당의 법맥을 잇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신미는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의 설움과 불편함, 그것에 대한 치유는 새로운 문자 창제라는 것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의지와 신미와 함께 세종을 보필하며 '훈민정음'의 원리를 궁구하던 날을 잊지 않았던 세종의 도움도 컸다. 세종은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신미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불경을 언해하고 간행사업에 공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법화경』 『반야심경』 『선종영가집』 등의 많은 경전이 번역, 배포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해진은 "간경도감을 통해 실천에 옮겨진 '훈민정음'은 불전언해의 불씨였고,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지남(指南)이었다."¹⁶⁾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불경 번역은 세종과 세조, 그리고 신미 사이의 '금란지교(金蘭之交)'라는 아름다운 관계의 결과물이었고, 또한 조선 불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미 입적 이후 불전언해의 맥은 거의 단절되었고, 학조만 왕실의 후원을 받아 『금강경삼가해』 『육조법보단경』 『진언권공』 등을 언해하였다.

요컨대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지 않고 하심의 자세로 조선의 불교문화를 다시 꽃피운 신미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의 실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전하는 상당수 훈민정음 문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신미는 조선 초기 불교사에서 다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관련 설화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융합콘텐츠 방안

최근 '스토리텔링'이 유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류은영은 "스토리텔링은 기술적 전통예술로서 사실적 및 허구의 사선을 시각이나 청각 등에 호소하며 실시간적으로 재연해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시공간적 또는 다감각적 또는 상호작용의 담화형식"¹⁷⁾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견해로 생각된다. 한 마디로 스토리텔링은 등장인물에 대한 사건을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연속적인 내용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상호작용적 행위¹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그 자체로 자족적일 수 없으며, 다른 무언가와 결합을 통하여 변별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향유자의 수요와 구현 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질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¹⁹⁾라는 박기수의 언급은 스토리텔링은 최적화된 텍스트 구현 전략이 될 수 있고, 소통의 기제일 수도 있으며, 장소성을 창출하기 위한 체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톨프 옌센은 "정보화시대가 끝나면 꿈과 감성을 파는 드림소사이어티 시대가 온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꿈과 감성을 담아내는 내용과 형식을 지닌 '스토리텔링'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역설적인 미담으로 즐거움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중요한 정신사적 함의를 지닌 설화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윤리도덕과 매마른 정서에 윤희유 역할을 함은 물론 치유의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와 문화적 가치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설화에 대한 접근과 분석은 변화한 매체 환경을 반영하여 설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소재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박해진, 앞의 책, p.67.

16) 김용곤, 「세종, 세종의 송불정책의 목적과 의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p.25.

17)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호, 2009, p.244-245.

18) 강만진, 『테마파크 스토리텔링 기획의 실제』, 도서출판 경남, 2013, p.18.

19)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2015, p.5.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과 음악을 중심으로 설화의 문화콘텐츠화는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설화와 영상, 음악 기반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관광객들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한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직접 방문을 통해 체험하고자 한다. 관광지는 관광객들의 체험과 관광지가 제공하는 체험 요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의 의미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복합의 문화콘텐츠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산업은 시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문화원형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문화콘텐츠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랜드마크인 ‘훈민정음’의 창제관련 다양한 설화를 오늘날 재해석하여 스토리텔링화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모바일 웹, 모바일 웹앱,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환경을 기반으로 콘텐츠화 하여 이를 마케팅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세종의 신미에 대한 독특한 신임과 ‘우국이세(佑國利世)’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투철한 국가관과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담는다. 둘째, 세조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가 주석하는 범주사와 복천사를 방문할 즈음에 있었던 ‘정이품 소나무’ 관련 설화, ‘문장대’ 관련 설화, ‘목욕소’ 설화 등이 있는 공간을 스토리가 있는 ‘명상의 길’로 만들고 영상제작을 하는 일이다. 즉, 가칭 ‘세조의 길’을 만들어 세조가 스승 신미를 존중하고, 신미의 법문을 듣고 단종을 살해한 점을 크게 참회하는 인간적인 면을 담아내고, 나아가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俗離山’이 지닌 아름다운 자연풍광 기반의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 가령, 당시 상황을 재현하거나 백일장 개최 등을 마련하는 일이다. 셋째, 오대산 상원사중창불사 때 신미가 보여준 지극정성의 자비심, 이에 세조가 직접 쓴 최초의 ‘훈민정음 권선문’에서 세조와 신미와 金蘭之交의 관계성을 조명하고, 특히 오대산 천년 전나무 숲길을 배경으로 ‘관대결이’와 문수동자의 이야기를 오늘날 시각에서 새롭게 스토리텔링화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 보급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도록 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다양한 설화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모바일 웹, 모바일 웹앱,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문화콘텐츠화 한다면 우리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한글은 더욱 훌륭한 커

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이상에서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에 대한 고증과 그의 위상 및 그것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융복합의 문화콘텐츠화의 활성화 방안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미(1403-1480)가 세종의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설화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의 위상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것들의 융복합 문화콘텐츠화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실에는 훈민정음을 통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중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불심을 널리 펴고자 했던 서원이 다분히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세조를 도와 불경언해를 함으로써 우매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실다운 소통의 세상을 열고자 한 신미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과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하는 상당수 훈민정음 문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 초기의 불교문화 역시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진단된다. 이 점에서 신미는 조선 초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적인 문화콘텐츠 전략을 위해서는 신미의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다양한 설화가 단순한 설화로만 인식되는데 그치지 말고 이를 융복합의 문화콘텐츠 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의미가 확장되고 우리 문화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진단된다. 가령,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를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상제작 하고 이를 연계한 지역 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모색해 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장지은이 지적하듯이 “웹 2.0/3.0의 진화에 따른 정보기술 환경의 확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웹, 모바일 웹앱,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환경을 기반으로”²⁰⁾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한글 창제 관련 설화를 스토리텔링의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 장지은,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학생-교수의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 6, No. 6, pp. 213-219, 2015.

REFERENCES

[1] *Munjongsilrok* Vol.2. Munjong 1st year, July, Jeongsa.
 [2] Park, Haejin, *The Way of Hunminjeongeum, Biography of Ven. Hyegak* Nanok, 2014.
 [3] Kim Bongtae, *The Secret of Hunminjeongeum Creation and Hunminjeongeum and Sanskrit Letter*, Daemunsa, 2000.
 [4] Kim Gwanghae, "Hunminjeongeum Creation and Buddhist Faith", *Study of Buddhist Culture*, Vol.3, 1993.
 [5] *Sejongsillok Vol.32.*, Sejo 19, March, Gapin.
 [6] Sejo, "Recommendation Letter for rebuilding Sanwonsa Temple at Mt. Odae", 1st part.
 [7] Kim Yeongbae, Kim Mubong, "Korean annotation of King Sejong Era", *Sejongmunwhasadaegyel*, 1998.
 [8] Lee, Neungwha, *The Complete History of Joseon Buddhism*, Dongguk University Press, 2010.
 [9] Hamheodang, *Hangukbulgyojeonseo* Vol.7, Dongguk University Press, 2002.
 [10] Bokcheonam, *Seongyodocheongseop Suamdang Sinmi Hyegakjona Silgi*, 2009,
 [11] Kim, Yonggon, "The Purpose and Meaning of King Sejong & Sejo's Respecting Confucianism", *Politics and Society of Joseon*, Jipmundang, 2002.
 [12] Ryu, Eunyeong, "Narrative and Storytelling: From Literature to Culture Contents", *Inmuncontents* vol.14, 2009, pp.244-245.
 [13] Kang, Manjin, *The Practice of Thema Park Storytelling Planning*, Kyeongnam Press, 2013. .
 [14] Park, Kisu, *The Structure and Strategy of Culture Contents Storytelling*, Nonhyeong Press, 2015.5.
 [15] Jiyeun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저자소개

백 원 기(Won-Gi Baek) [정회원]



- 1980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학과(문학석사)
- 1996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문학박사)

- 1990년 3월 ~ 2006년 7월 : 동국대학교전자계산원 E-비즈니스학과 교수
- 2006년 8월 ~ 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관심분야> : 관심분야 1. 융복합 엔터테인먼트 2. CT